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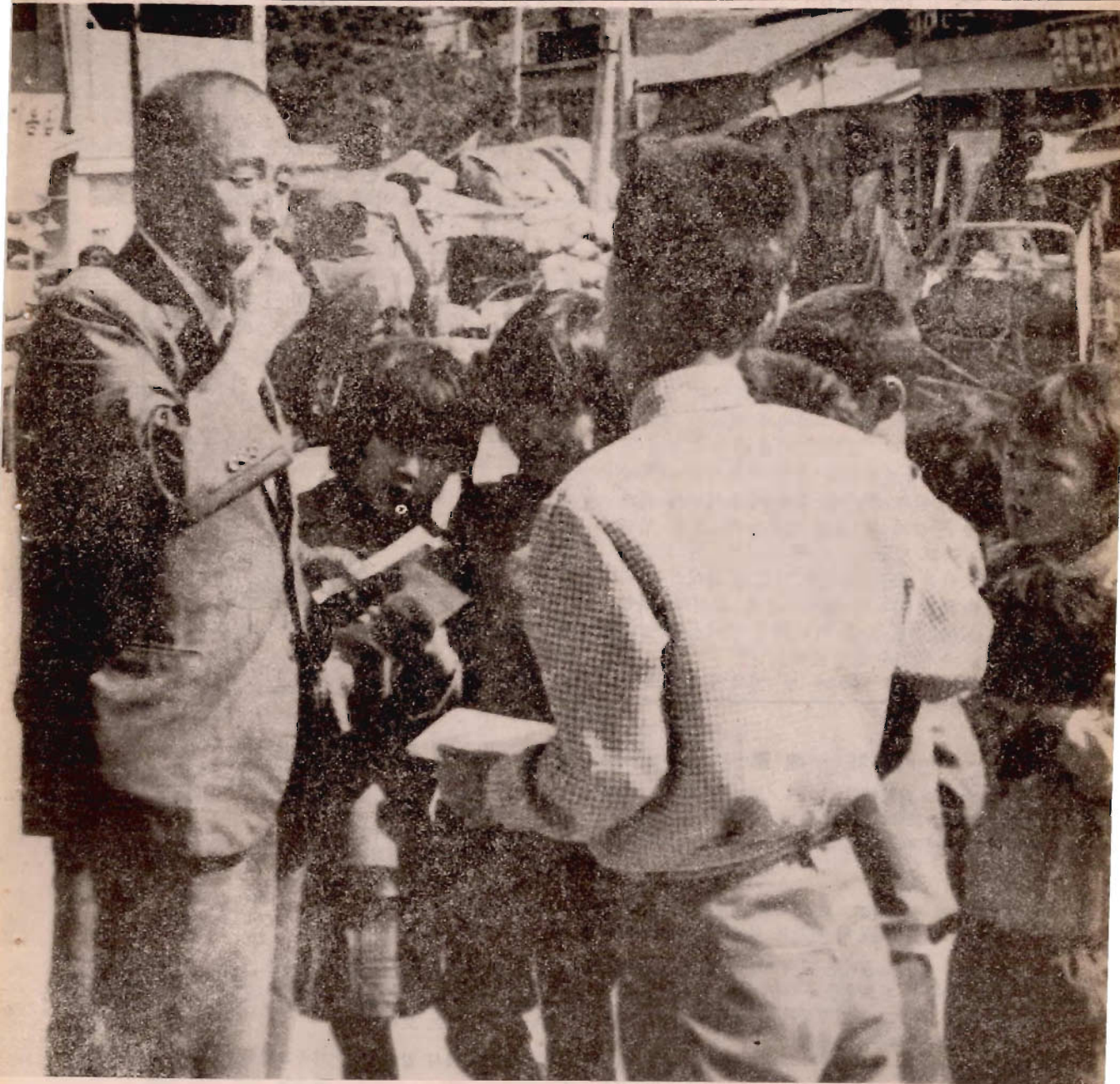
충현

6

발행인 김 창 인
편집인 위 영 환
주 간 신 성 중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 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 · 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5년 6월 1일 발행
통권 제18호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엡 6:19

□ 6월은 충동원전도운동의 달 □

미스바로 모여야 산다

—6·25를 맞아 갖게 될
부흥회에 붙여서—

사무엘상 7 장에는 북한 공산도당들의 위협에 처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잡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전제내 시리라”(삼상 7:3-4).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삼상 7:5).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양을 취하여 완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삼상 7:9).

최근 인도차이나반도에서의 충격은 김일성의 중공 방문과 함께 우리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보다 6 주 앞서 우리교회에서 특별집회를 통한 신앙적인 재무장과 함께 성령의 뜨거운 불을 일으키면서 회개의 운동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결과라고 믿는다. 그뿐 아니라, 이 회개의 운동이 비록 우리 교단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6·25를 기하여 전국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보이게 된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뜻있는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6월에 열리게 될 전국적인 성회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사무엘상 7 장은 분명하게 답을 해준다. 즉 먼저 우리는 미스바로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범죄를 자백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섬겨온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한 재물을 바치는 회개의 운동인 것이다.

우리의 ‘인주인 북한’의 공산도당 즉 영적 블레셋인들은 그동안 침략을 위한 많은 준비를 한 것이 사실이나 문제는 거짓과 우상에서 물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미스바의 운동만 일어난다면 우리는 절대로 블레셋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이다. 요는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섬겨오던 모든 사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운동을 벌리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6·25를 기해 전국적으로 가지게 될 회개와 부흥의 불길은 이 민족의 살 길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총현의 모든 성도들은 그 동안 특별집회를 통하여 보여준 그 필사각오의 열심을 가지고 임할 뿐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젊은이들과 제직들의 참여가 요청된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우리의 회개운동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주간>



차 례

- <설교>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 정관일 3
- <기관소개 ⑧> 교육연구위원회 4
- <해의선교> 선교회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 서만수 5

특 집

- ☐ 한국교계 문세선교, 그 분석적 조명 / 박종구 6
- ☐ 충청교회 문세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 조선근 8
- <성령론 ①> 성령의 올바른 인식 / 정상우 13
- <계획서> 총동원 전도운동 12
- <신앙학생 소개> 고 김진주군의 죽음 10
- <칼럼> 6·25의 교훈 / 정은표 11
- <만평> 오용기 11
- <교회 뉴우스> 14

6월의 행사

- 1일 / 제직회 월례회
- 6일 / 주일학교 교사수양회
- 8일 / 남전도의 월례회
- 15일 / 교육연구위원회 월례회
- 15일 / 여전도의 월례회
- 22일 / 총동원 전도운동 시작
- 22일 / 구역권찬회 월례회
- 23일 / 교육연구위원회 월례회
- 23일 / 춘기부흥회 시작
- 29일 / 주일학교 교사월례회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획된 대로 움직여 가고, 정의편에서 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백성은 징계는 받아도 흥합니다 ◇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세라 정세가 하루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소용돌아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아무도 속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에 거울처럼 나타난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을 안다면 그만큼 앞으로의 역사를 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한 예언인 동시에 세계 인류(역사)를 위한 예언서로써 이스라엘 역사상의 흥망성쇠의 교훈은 곧 세계의 흥망성쇠의 길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 선민도 역천(逆天)할 때는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말년에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다 망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권세자는 뇌물을 좋아했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을 치고 제사장은 사를 위해 교훈하다 망했습니다. 종교가 부패할 때 정치도 교육도 썩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도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갈 무렵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방 신들을 섬겼으며 하나님보다 인간의 세력을 더 믿게 되었고 부유한 자들은 사치와 음탕으로 썩어져 알날을 보지 못하게 되니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어도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렘 9:1-2). 이렇게 하여 선민 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는 여지 없이 재앙을 드셨던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2. 순천(順天)하면 망할 민족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앗수르의 살해립의 군대의 포위로 멸망 직전에 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므로 흥했고, 회개한 니느웨는 살 길을 얻었으나, 소돔성과 노아 때의 백성들은 역천(逆天)하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하는 나라는 패배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라는 교훈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라 칭한다고 하더라도 우상 국가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성경 속에 열국(烈國)과 열왕(烈王)들의 변화는 경우와 때를 따라 각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도록 편리하게 처리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인간 역사)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이스라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고는 했지만 그들에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이 있었거나 퇴보했을 때에 언급한 것 외에는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놀라운 금신상의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 예언적인 계시는 종국에 가서 메시아왕국이 세겨질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세상 나라들이 얼치락뒤지락한다 해도 결국 역사를 손안에 쥐고 계시는(시 30:15)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의(義)는 말살될 수 없으며 마지막 승리는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천자망, 순천자존(逆天者亡, 順天者存)한다는 옛말대로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라가 운영되어야 나라가 흥합니다. 월남과 크메르 그리고 라오스가 붕괴된 차제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라벨론과 애굽을 놓고 당한 일이 북(北)의 공산 세력과 우방 미국 세력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한국에게 주는 교훈을 뜻깊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진리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 없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오늘날의 현실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는 예측을 불허하는 세계 정세라고 하지만 오직 성경에 나타난 진리는 불변하고 정의는 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예정)대로 역사는 움직일 것입니다.

(부록사, 고등부 지도)



<정관일 목사>

△성경 / 시편 39편 15절▽

최초의 교육문제 전담 연구기관

—교회교육의 현황 분석·방향 제시·

내용연구 개발을 목표로—



〈위원장/신성종〉

총현교회가 제10주년을 기하여 「천국일꾼을 키우자」란 표어 아래 교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11부 주일학교로 확장되면서 지금까지 주일학교 업무를 전담 연구해 온 교육위원회로서는 그 업무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많을뿐 아니라 또 시간을 요하는 일들을 연구할 수 없게 되어 금년을 기하여 교육연구위원회가 새로 발족하게 되었다.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신성종 강도사 외에 김광철·위영환·김기정·최석주 비분 장로를 비롯하여 우기전·이조영·한정일·이준교·조신근·정홍식·정은표 집사 등이 있다. 교육연구위원회는 ① 교육현황 분석 ② 교육방향 제시 ③ 교육내용 연구 개발을 목표로 하여 주력할 것이라 하며, 금년에는 특별히 현황분석에 중점을 두면서 가능하면 방향 제시까지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한다. 그뿐 아니라 교육위원회나 당회에서 위임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지리라 한다.

그 동안 교육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으로는 교육과정의 현황 및 검토(발표자:정홍식), II부 주일학교의 신앙현황 조사(발표자:정은표), 주일학교의 출석통계 분석(발표자:이준교), 우리교회 문서활동의 실태 분석(발표자:조신근) 등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만한 연구로서는 현재 우리 교회에는 교과과정은 있으나 교육과정은 없다는 충격적 결론이었다. 여기서 교육과정이란 목적의 설정, 경험의 선정, 경험의 조직, 학습지도 및 평가 등을 말한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5년 후에는 주일학교의 학생수가 현재의 배에 이른다는 통계적 결론도 새로운 문제점 즉 시설·교사들의 문제점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또한 신앙현황에 대한 통계조사도 주목할 만한 결론이 나와 보다 세밀한 조사를 다시 착수하여 시정책까지 제시하리라 한다. 그리고 문서선교 혹은 문서활동이란 교육적인 면에서나 복음전파의 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데 우리교회 문서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 큰 주목을 끌었다.

◇ 중요 연구문제 제목(1월~5월) ◇

1. 교육과정의 현황 및 검토
2. II부 주일학교의 신앙현황 조사
3. 주일학교 학생 출석통계 분석
4. 우리교회 문서활동의 실태 분석

앞으로의 긴급한 연구 대상으로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총현교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력 자원의 조사·연구」등 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다른 기관과는 달리 비교적 배일에 싸여있는 교육연구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연구 논문들은 총현의 「천국 일꾼을 키우자」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 교단의 교육분야에 커다란 자극이 되리라 믿는다.

구태여 문제점을 꼬집어 낸다면 모든 위원들이 예외 없이 여러 직분을 맡고 있어 시간적으로 겹치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모임은 매달 마지막 주일에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간 중에 하루를 더 모인다.

위에서 지적한 계획 외에도 앞으로의 교육관 건축에 도움이 될 자료로서 교육시설물에 대한 파악과 시설기준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구수업을 가져 교수법, 교안 작성법, 평가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제적인 도움도 주리라 한다.

아무튼 한국 교회에서는 최초로 시작된 교육연구 위원회의 성공여부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와의 긴밀한 유기적 관계 여하와 그리고 교육연구위원회에서 연구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당회에서 받아들여지느냐에 있을 것 같다. 그뿐 아니라 보다 많은 교육에 뜻을 둔 평신도들이 선발되어 몇사람에 의한 편중된 연구가 아니라 교인 전체의 중저(衆智)를 모으는 습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 같다.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는 80년대까지의 제 1차 교육계획 5개년의 청사진을 세우는 일이며 교사와 시설 불충분으로 인해 오게 될지도 모르는 난제들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한다.



〈연구위원회의 회의 모습〉

충현교회 선교회원들에게—

정글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사역장

정글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로 뜻을 둔 동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사랑과 선교회 동지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와 정성에 사로잡힌바 된 지령이보다 못한 저희는 한 겨울의 시련을 딛고 피어나는 고국의 4월을 그립니다.

국내와 가까운 이웃 나라에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할 곳이 많은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다지도 멀고 고적한 남양고도의 정글에 우리의 정성을 쏟아야 합니까? 우리가 남들의 말처럼 미련한지 현명한지는 몰라도 우리의 사역이 무겁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으며 사도 바울은 두려운 로마성으로 진입했던 것입니다.

정글은 우리의 정성과 수고를 위하여 예비된 우리들의 사역장입니다. 우리가 이 정글을 의면한다면 정글은 영영토록 흑암 속에 잠자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우리의 사역앞에는 무지한 난관이 대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돌파하는 것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의 피로 맺은 선교의 동지 여러분!

수천년의 우람한 정글 속에 실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글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섭리 중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안정을 되찾고 이 일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조국의 동지들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계획했던 선교관 건축은 일단 보류하고 9월부터는 남부 스마트라로 행할 예정이니 더욱 더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5년 3월 31일

할렐루야 자카르타
서만수 선교사 내외 올림



선교소식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 내외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의 말과 함께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선교관 건립 대지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전해왔다.)

□ 선교관 건립대지 확정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거의 포기상태에 있었던 선교관건립대지 구입은 전적으로 여러 회원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도움과 함께 지주가 거액을 현금하여 줌으로써 시내 중심에서 7km 내에 들어가는 곳에 대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을 힘입어 온 교회가 분발하여, 선교관도 또한 속히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사용 중인 선교관은 오는 6월 말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가능한 한 속히 착공하려 합니다. 처음 계획인 4층까지 6층으로 건축하기로 한 것을 건축비 관계로 바꾸어 2층으로 건축하기로 하고 우선 1층 공사만이라도 완료하여 6월 말까지 입주하고자 합니다.

* 선교회원의 임무 *

- 1 하루 한번 이상 철저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현지선교를 지원하는 본선교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합니다.
- 3 선교사역을 위해 작정한 자기의 책임을 다합니다.

◇ 선교관 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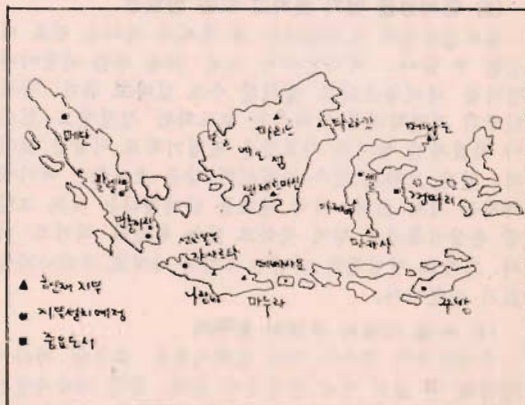
면적—575m², 위치—현 선교관에서 자동차로 7분 정도 거리, 시가—28,175달러(약 1,400만원)인데 이중 10,374달러만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인 17,801달러는 지주의 현금으로 충당함.

◇ 선교관

전평—400m², 공비—1m²당 145달러로 모두 58,000달러(약 2,900만원), 공사기간—1층만 약 6개월

※ 현재 대지 구입비 2,090달러가 아직도 미불 상태이며 1층 건축비 29,000달러가 당장 필요한 형편이라고 한다.

〈인도네시아주재한국선교부〉



한국교회 文書宣教, 그 분석적 조명

朴 鍾 九

〈아동문학가·선방에서주간〉

1. 정기 간행물

한국교회에 영향력있는 정기간행물로는 주간신문에 기독교신보·기독교공보·크리스찬신문·교회연합신보·한국복음신보 등을 들 수 있고, 월간 잡지로는 기독교사상·새가정·새생명·기독교교육·교사의 벗·성별·복된 말씀·신앙계·크리스찬라이프·기독교세계 등을 들 수 있다. 계간지로는 신학지남, 연간지로는 작신학대학의 교지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정기 간행물들을 놓고 분석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현상에서의 문제점들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1)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는 교파의 장벽

주간지들이나 월간지들이 대개는 어떤 교파를 배경으로 하고 그 교파의 기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즈음은 정치적으로 하나로 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긴 하나 그와 같은 막후 절충은 정치적인 견해이지 평신도들의 질적 내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교파가 나누일 때도 평신도들은 담담했고, 또 하나가 된다고 해도 평신도들은 무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스컴들이 저나친 색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도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연막전을 펴고 있다고 보아진다.

(2) 개성 상실 시대

사실상 주간지들을 펼쳐보면 주간지로서의 기능, 즉 독특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개성이 상실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그것은 전항에서 저격한 대로 기관지적 입장에 서기 때문에 편집국의 독자적 창의성이나 편집권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3)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할일성

정기간행물의 영세성이란 곧 독자가 적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독자편에서 보면 읽을 만한 신문이나 잡지를 내어놓으라고 항의할 수도 있다고 본다. 독자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고도화한 경영술도 있어야 하겠지만 독자를 사로잡을 편집기획도 시급한 것이다. 언제 보아도 같은 집필진의 같은 소재들. 여기에 독자는 지쳐 있다. 외국 원조를 받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온상식물성을 탈피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다. 기독교 재벌들의 과감한 투자가 아직도 우리나라엔 없기 때문이다.

(4) 시설 미비와 자료의 황무지

주간신문의 경우는 자체 인쇄시설을 소유한 자라야 발행할 수 있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자체시설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제작에 완벽한 여건이 되지 못해서 타인쇄시설에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우리네

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편집디자인의 원만한 구상이나 실현이 외면당하고야 만다. 게다가 편집자료의 고갈로 알찬 기획을 할 수도 없고 또 사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기독교 100년이나 세계 최대 집회 성공이니 떠들지만 설교 100년의 자료들의 광무지에서 어떻게 독창적인 특집과 장기 편집기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모른게 설교조로 시작하고 마무리짓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2. 활자 미디어를 통한 문서선교

여기서는 48페이지 이하의 전도문서를 대상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약 100여 종의 전도지가 나와 있다. 대한성서공회·생명의 말씀사·한국가정문서선교회·침례회 등에서 주로 제작 배포한 전도지들이다.

(1) 외국 전도지의 번역 공해

성서공회에서 발행되는 전도지들은 거의가 성경본문을 내용으로 싣고 있지만 다른 전도지들은 90%가 번역전도문을 싣고 있다. 번역이 다 다른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구성이나 문장이나 내용에 있어서 우리의 독창적인 것보다는 거티감이 있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전도문 작성자 부재, 외국원조로 제작하는 경우의 계약 조건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도 있으나 이런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타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내용의 현대화도 시급한 문제이다.

(2) 새로운 배포 채널

전도지는 제작만 하고 그 전도지를 판매하여 소요자가 대행하여 배포하는 실정이다. 물론 일부 제작과 배포를 겸하는 단체도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광범한 망으로 배포하는 새로운 채널이 요청된다고 보아진다. 시한부적이고 단계적인 방법과 또한 항구적인 배포망을 공신력있게 형성하고 있을 때 전도지 제작을 위한 독지가가 언제든지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3. 기독교 출판

월·부자재 파동에 이어서 제작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출판가는 임대 홍역을 치루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회복은 요원하고 허약체질에 다른 질병이나 겹치치 않을까 불안하기만 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작년도의 통계로 보면 종교물이 435종으로 1973년도에 비해 30종이 미달된 발행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1972년에서 1973년 사이에 124종이 증가했던 통계에 비하면 엄청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출판사들에 의해 불을 일으키고 있는 성

경주석 간행 작업들 때문에 기독교 출판가는 매 아닌 슬럼임에 과열되어 있다. 따라서 독자들도 불황속에서 활발한 출판계를 향해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길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에는 커다란 출혈을 인내하면서 사명감 때문에 이끌고 온 출판사들이 더 많은 실정이다.

그럼 기독교 출판의 문제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1) 영세기업으로 허약해진 숨결

현재 한국출판문화협회에 가입된 출판사는 1,100개사가 된다. 1973년도에서 1974년도 사이에는 122개사가 신규 가입되었다. 불황속에서도 이렇게 새 출판사가 탄생된 것은 그만큼 출판사가 소자본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법적 조건 때문이다. 그러나 쉽게 창립된 것만큼 난립되므로 처음부터 영세성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 출판사는 현재 60여개사로, 보는데 외국의 특별한 지원을 받지 않는 개인 출판사들도 역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근본 자신이 부족한 데도 원인이 있긴 하지만 독서인구가 적은 데에 큰 원인이 있다. 400만 신도를 대상으로 1천부나 2천부가 1년 내지 2년 동안에 판매되고 있으니 경영상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출판기업의 영세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2) 번역시대에서 저술시대로의 도전

현재 한국에서는 20여 종이 넘는 주석류가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인이 저술한 주석은 5종 이내에 속한다. 아직도 80% 이상을 번역 출판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교계의 출판 역사로 박서는 아직도 5년~10년간은 번역 시대의 열기가 치솟는 기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신앙애사의 경우는 90%가 국내 작가의 저작인데, 「사망의 원자탄」(안용준 지음)이 5개 국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죽으면 죽으리라」(안익숙 지음)도 일역(日譯) 출간되어 일본에서 영화촬영 중이다. 아직은 미숙하더라도 긴 안목으로 우리의 저작을 심어 나가는 고독한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

(3) 매스컴의 공동작전

문서선교에 있어서 한 장의 전도지, 한 장의 신문이 전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권의 책이 전해져서 읽히운다는 것은 보다 큰 비결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대담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매스컴에서는 반드시 복리복사 독서정보를 위한 코너가 마련되는 것이다. 기독교 매스컴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사심 없는 상호 협조로 기독교 출판분야를 관심있게 취급하는 게 좋은 육성책이 될 것으로 본다. 일본의 경우 주간지들은 본격적인 독서으로 이끄는 자극제와 인도자의 역할을 집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서신문」이 있어서 직접간접의 독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좋은 매체가 있다. 기독교 매스컴의 공동작전이 시급히 요청된다. 따라서 유능하고 참신한 새 라이터들을 발굴하는 기회와 문호를 역시 매스컴에서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이 세대의 요청과 비전은 무엇인가

(1) 평신도를 위한 정기간행을 참관

400만 신도의 대어장에 침투할 수 있는 참신한 정기간행물이 요청된다. 평신도를 위한 어떤 경건 서적을 간행했을 경우 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게 되면 목회자들만이 신문을 구독하므로 평신도에게는 그 정보가 단절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평신도들은 술한 윤리적인 문제와 급변하는 물질속에 휩쓸리고 있으면서 허다한 신앙생활의 물음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2) 성장세대와 호응을 함께할 잡지

장남족이나 대학생들에게 왜 독서하지 않는다고 물으면 입을 닫은 책을 내어놓으라고 한다. 한심스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기성세대들—오히려 그들은 부조리의 주인공들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할 광장이 없다고 한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청년의 종교이다. 성장세대의 정신질서를 이끌어 줄 잡지의 창간이 요청된다.

(3) 어린이 잡지

따뜻한 애정을 쏟았던 「새벗」도 죽고 말았다. 어른들은 무엇인가? 사망 한 봉지, 땅 한 개면 현대의 어린이들을 속아 넘길 수 있는가? 만화와 텔레비전에 빼앗기고 있는 하늘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 기성세대들은 큰소리칠 수 있는가?

(4) 출판사업

한국의 현실에서 아직은 출판 사업이 힘겨운 선교사업이다. 그러나 사명감과 보다 대규모의 자본으로는 가능하다.

(5) 전 망

목회자를 위한 자료집과 선교잡지, 절충식 전도지, 교사들을 위한 교육자료집, 지도자나 지성을 위한 사상지의 출현은 결코 머먼 신화일 수만 없다. 어느 지점쯤에서 용얼이고 있는지.

5. 에필로그

우리는 지금 누워있는 한국교회의 맥박을 짚어 보고 있다. 「패역한 세대」나 「회칠한 무덤」이라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명해 본 한국 교회는 과감한 수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마게도니아의 손짓이 우릴 부르고 있다. 이 밤도 우릴 부르고 있다.

(*)

총현교회 문서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조 선 근 집사

(영아부부장 · 교육연구위원)

1. 서 론

(1) 문서에 대한 정의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문서활동을 떠나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문서와 더불어 혹은 그 속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문서(文書)란 글로써 일정한 사상을 적어 표시한 것의 총칭이다. 이같은 용어의 개념에 따라 문서를 생각하면, 크게는 주일학교 교재와 부교재 · 교사지 · 총현지 등으로, 작게는 주보 · 요절지 · 각종서류 등으로 나눌 것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사진기록 · 녹음테이프 · 음반까지도 그 범주에 속한 것이다.

(2) 문서활동의 발자취

우리교회는 20여년 전, 설립 첫 예배를 전후하여 행정적인 문서가 있었고, 예배순 · 광고 · 각종 통계가 있는 「주보」가 일찍부터 발행되었다는 데서 우리의 문서활동이 총현교회 역사와 같이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서활동에 대한 보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그 역사성과 함께 현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자녀」(1958. 6. 8, 유년주일학교 발행)은 프린트물이지만 우리교회 문서활동의 효시일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읽을거리지만, 역시 유년주교에서 몇차례 낸 「총현부모」(1960년 여름 창간)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간행되었다는 점이 특색이었다. 이 때부터 주일학교 각부에서는 면회회를 중심으로 문서운동에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곧 유 · 초 등부의 「총현어린이」, 중 · 고 등부의 「총현학생」 그리고 대학부의 「총현대학」 「현시바」 등이었다. 그후, 유 · 초 등부에서는 「총현어린이동산」(1966. 12. 25)을 내놓았는데 활자인쇄로서는 첫 시도였다.

이렇듯 각부가 경쟁이나 하듯 문서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을 무렵, 당회는 경비를 줄이고 각부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어 각부 문서물(주로 신문)을 통합하여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그의 산물로 활판인쇄물인 월간 「총현주교」(1967. 3. 12)의 창간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교회의 공식 기관지는 아닐지라도 주일학교 관계기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중요 기사도 취급했고 또 통합해서 제작했으며 외부로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총현」지의 전신이라고 하여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 「총현주교」는 1년 뒤에 「총현어린이」와 「총현」(중등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얼굴을 바꾸었다가 6월에 다시 「총현주교」로 복귀하여 1970년 12월호로 막을 내렸으며, 1년 6개월만에야 교회는 문서를 통한 교육과 교회 방침을 교우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 기관지 「총현」(1972. 4. 30)의 햇빛을 보게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우리교회 문서활동의 대표라 할 「총현」이 있기까지의 그 배경 이야기는 한 마디로 우여곡절 속에서 지내온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 특기할 사항, 곧 「총현 10년사」(1963년판)와 「총현 20년사」(1973년판)는 우리교회가 겪은 번동과 성장을 정리했다는 데서 오늘날의 「총현」을 이해하고 연구함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8, 9년 전 일로, 우리교회가 본교단 주일학교 유 · 초 등부 계단공과 간행을 목적으로 3개년계획을 설정, 우선 그 1차년분을 편집 · 제작하여 총회 교육부에 넘긴 것은 한국 교회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아 우리교회 문서활동사에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우기 금년에는 도시구입비로 1,980,000원을 책정했고, 「기독신문」대로 180,000원을 「교사의 벗」대로 225,000원 근간에 통일교에 대한 반박성명문 제작비에 50,000원 보조와 수십만장의 전도지 제작 등 그리고 「총현」을 새로운 과목으로 예산에 반영, 월간으로 승격 ·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우리교회가 문서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다.

2. 현 황

(1) 개 관

1974년도 기준으로 필자 나름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프린트물이 약 900종이나 되어 주 평균 17종 이상이란 놀라운 숫자를 기록했으며, 활판물과 옴셋물에 있어서도 20여종을 헤아려서 전체의 경비를 금액으로 따지면 2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총현」지의 월간 발행으로 300만원은 돌파할 것 같고 도서비 · 교재비 등 모두 포함시키면 문서부문의 예산총액이 아마도 600만원에 이를 것이다.

(2) 기 관 별

① 주일학교

새신자부에는 새신자 육성을 위한 7가지 부교재가 간행되었고, 예배순서 · 통계 · 광고를 내용으로 한 「주보」가 매주일 발행되고 있다. 영아부와 유치부에서도 각기 「주보」를 만들고 매달 「교육안내」를 통해 문서활동을 하고 있다.

유년부에서는 「일용할 양식」이란 숙제지가 나오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주보」는 단순히 예배순이나 광고만이 아닌 문서활동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가득찬 것을 보게 된다. 따로 신문이나 회지가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자녀」-「총현어린이」-「총현동산」을 내다가 뒤에 「총현주교」에 흡수된 바 있다. 초 등부에서의 「오늘의 만나」(숙제지)와 주보도 유년부의 것과 대동소이하여 이것들을 통해 문서활동을 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작년 12월에 어린이회에서 회지 「하얀마음」(4·6판, 56면, 인쇄) 제 9호를 내었는데, 전에는 「우리자녀」-「총현어린이」를 내다가 역시 「총현주교」에 흡수되었고, 그뒤 어린이회에서 「어린이양」 백신문을 낼 바 있다.

중등부는 예배순·통계·광고 등이 실은 주보가 있고, 면리회의 회지「실로암」제15호(16절, 70면, 프린트)가 작년 12월에 간행하였다. 이것의 전신으로는「충현학생」이 있었고,「발문리어」신문이 나오다가「충현주교」에 흡수된 바 있다. 고등부도 중등부 것과 같은 류의 주보가 나오고 회지는 역시 면리회편의「코이노니아」제16호(16절, 80면, 프린트)가 작년 12월에 발간되었다. 한때「충현학생」→「충현계절지」에서「코이노니아」로 이어졌다.「필그림」프린트신문이 있었으나「충현주교」에 흡수된 바 있다.

대학부는 주보와 전도지를 특수한 스타일로 만들어 쓰며, 대학부찬송가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는게 이색적이다. 미니신문「충현대학」(32절, 8면, 프린트)이 겨우로 발행되고 있고, 면리회편 회지「여수문」제5호(16절, 100면, 프린트)가 작년 12월 간행되었다. 여수문은「충현대학」→「웹시바」에서 연결되어졌다. 청년부의「주보」이용도도 대학부 것과 유사하다. 역시 미니신문이라 할 계성있는「청년」(4·6판, 4~8면, 인쇄)지가 겨우로 출간된다. 전에는 회지「웹시바」가 간행되다가 중지상태에 있다.

장년부와 노년부는 이렇다 할 문서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② 전도부와 해외복음선교회

전도부는 수십만장의 전도지를 대한성서공회의 힘을 빌려 제작·배포하고 있고, 해외선교회는 달마다「선교소식」(16절, 프린트)을 회원들에게 나눠준다. 한때 회지로「빛」(1969년, 인쇄)이 창간되었으나「해외선교」로 바뀌어 계속되다가「충현」지에 흡수된 바 있다.

③ 남·여 전도회

남전도회는「찬송가 해설」(16절)이란 유인물이 월례회 시마다 배포되고, 회지「아가페」제9호(4·6배, 10면, 인쇄)가 작년 11월에 간행된 바 있다.

④ 성경학원과 도서관

10여종의 교육용 프린트교재가 있으며, 매월 성경통신강좌가 나온다. 도서관에는 현재 약 1,200권의 책을 보유하고, 각종 주석과 사전류 특히 개혁주의 신앙계통의 기독교 서적은 총 망라하고 있다.

⑤ 교회 사무실

「주보」의 인쇄와 함께 우리교회 기관지(4·6배, 16면 인쇄)인 월간「충현」이 간행된다. 녹음테이프(대형)는 외부에 제공한 것 말고 90개나 확보 중이다.

⑥ 기 타

각부 각기관마다 사진기록이 남아 있으나, 있어야 할 사진들이 없는 반면에 불필요한 많은 사진들이 기록과 함께 붙여져 있다. 교회 구내 게시판을 이용하는 문서활동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가지각색이다.

3. 문제점

문서활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현실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제한된 지면이므로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만을 제기한다.

(1) 누락된 부서와 그 해결책

대학부는 두 종류가 있는가 하면 여전도회나 노년부 등은 있다싶이하다. 우리교회 여전도회는 그 규모로나 활동상황면에서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며, 우리교회에

70세 이상되신 분이 200명 이상이라는 것은 노년부도 큰 비중으로 클로즈업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편집 원칙의 부재

이 말은 편집 지도자의 부재(不在)로 말할 수도 있다. 우리교회 문서 속에는 내용이 없는 글이거나 우리 교단·교회의 입장과는 이질(異質)적인 것을 게재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것은 지도자가 지도·감독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용어의 그릇된 이해와 사용

성령(성신으로 쓰지 않음)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점이라든가, 어린이 예배용 노래에서 해를「해님」으로 쓴 가사를 그대로 쓰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용어 특히 신학과 교리에 대한 용어에 바른 이해와 사용이 시급하다.

(4) 제작상의 불성실

어떠한 인쇄물이든간에 제작과정에서 세심한 체크가 필요한데, 안하기 때문에 교정상의 탈자·착오가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잘못 만들기도「바로잡음표」나 회지 등에「정오표」를 달지 않는 데에 문제는 있다.

(5) 보존상의 소홀

지금까지 발행·출판된 모든 프린트·인쇄물의 체계 있는 보존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교회 문서를 체계적으로 통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6) 컴비엔에서의 파다지출

문서물(인쇄물)의 성질에 따라 발행행위가 달라진다. 같은 인쇄물 같은 수량을 만드는 데에도 그 액수의 차가 심한 것은 이에 대한 지식·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4. 제언(결론)

일반적으로 문서활동은 교육적인 면과 복음전파의 면에서 중요하고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신학박사 김 호식 교수는 어느 정도의 문서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주일학교 발전상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웨스트민스터신학 설립자 메이친 박사는 미국에 있어서의 보수주의운동의 실패 요인을 문서운동의 실패로 돌리고 있다. 이런 문서운동, 문서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된다.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문서가 문서로서의 구실을 다하려면 교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과감한 투자와 문서전도요원의 육성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해 필자는 우리교회의 모든 출판물을 통괄할 출판부의 신설을 강력히 제안한다. 이 기관은 교회 내의 문서물을 무조건 감시·제재하는 일보다는 교육적인 가치에서 검토·지도·육성·보존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구로서의 출판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름지기 우리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한국교회의 문서선교 내지 문서활동은「충현교회」에 와보면 된다」는 비전을 꼭 심어 주자. (*)





짧은 생애—온전한 삶

한 소년의 죽음이 온 가족의 영혼의 소생을 가져왔다. 난치의병, 백혈병의 진단을 받은지 6개월, 무서운 투병 2주만에 15살의 소년이 저 세상으로 갔다. 「저는 슬퍼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기쁘잖아요. ...저의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교회 꼭 다니세요. 그래야 천국에서 만나죠……」라는 마지막 글을 남기고.

불신가정에서 홀로 교회를 다녔다. 우리교회 유년주일학교를 거쳐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에 적을 둔 김건주(金健柱)군이 지난 5월 7일, 저 천국으로 갔다. 그의 투병을 통하여 깊은 감명을 받은 그의 온 가족이 교회를 찾았다. 15년의 짧은 생애였다. 그러나 온전한 삶이었고 죽음 또한 고결한 것이었다.

「어머니! 이제 기도받으려 안 갈래요.」

다시 예전의 병증세가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건주는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었다. 온몸에 열이 나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 진단결과 백혈병, 난치의 병.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 6개월내에 죽는다는 백혈병의 선언이었다.

가족은 절망 속에서도 그에게 그 사실을 숨겨왔다. 그러나 총명한 그는 자신의 병이 고칠 수 없는, 그래서 머지않아 죽으리란 것을 알고 있었다. 10여일의 입원 끝에 퇴원한 후 사실상 학교를 중단한 상태에서 배재중학을 졸업했다. 한영고교에 추밀입학후 등록을 마치고 휴학, 집에서 요양하고 있었다. 작년 10월 이때 5개월여 건강히 지냈고 거의 다 나은 듯 싶었다. 이웃에 사는 집사님의 권유로 2개월동안 혼자서 기도를 받으러 다니던 중이었다.

이때가 4월 24일. 그후 계속해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러자 매일 구역에서 심방을 왔고, 4월 27일에는 고등부 지도목사님이 심방을 왔다. 꼭 개근하던 학생이 결석했던 것이었다. 또한 친한 친구들이 매일 가방을 들고 찾아왔다.

이 기간동안 그의 아버지 김진영씨는 신앙의 힘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았다. 즉 나중에는 백혈구압이 백속까지 퍼져서 복수가 되고 심한 열이 올라 참을 수 없는 사경이 계속되는데도 조금도 고통의 모양과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여기서 가족들은 크게 감복을 했다. 「과연 신앙의 힘이 무엇이기에 저 어린 것이 어른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참는가……」 또한 건주가 자리에 눕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루도 걸리지 않고 찾아와 기도를 해주며 위로 해 주신 목사님, 집사님들의 열성과 사랑에 뭐라 말 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며 「과연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하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자리에 누운지 1주일이 지났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극도로 허약해져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무서운 고통이 오는 듯 하지만 한마디의 고통의 말도 없었다. 눈이 안 보이는 일이 무척 안타깝고 신경이 썩었

다. 「숙희누나! 내 성경책 좀 찾아 줘」 자리에 누워서도 성경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볼 수가 없었다. 「5월 31일까지 신약을 다 봐야 하는데……」 매일 성경읽기표를 스스로 작성해 놓고 보고 있었다. 그 계획표에는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누가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도록 적여져 있었다. 그의 요구에 의해 그의 누나들(숙희, 순옥)은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어 주곤 했다. 이때 성경책에 끼워 둔 유서가 발견되었다. 자리에 눕기 전에 미리 써 둔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먼저 갑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벌써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효도 한번 못해 보고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군요. 저는 슬퍼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기쁘잖아요.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울지 마세요. 저는 천국에 가는 길요. 저는 기쁘요. 마지막으로 꼭 한가지 소원이 있어요. 지금까지 저의 모든 부탁을 들어 주셨지요. 어려운 형편중에서도 저를 위하여 전화를 놓아 주시고 학교에 못 갈 줄 알면서도 입학수속을 마쳐 주시고 책, 교복까지 다 준비 해주셨지요. 전 다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이것은 저의 소원이예요. 꼭 들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교회에 꼭 다니세요. 열심히 믿으세요. 부탁이에요. 그래야 천국에서 만나죠. 이것이 건주의 마지막 소원이예요. 육신은 가지만 영혼은 항상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만수무강하세요.』

훌륭하신 부모님이었다. 그 주간(27일)부터 교회에 출석했고 많은 위로와 받고 계신다. 5월 7일, 건주는 아침부터 기분이 좀 되는 듯했다. 그 동안에 온몸에 번졌던 붉은 반점이 씻은 듯이 없어졌던 것이다. 2주일동안 잠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돌보아 주던 그의 누나 숙희의 얼굴을 그의 손으로 찬찬히 만지며 「누나! 그동안 나 때문에 수고 많았지? 누나도 예수 잘 믿고 저 천국에서 만나」 누나 숙희는 애써 울음을 참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건주가 이제 곧 나올 것 같다. 자 성경 읽어 줄게. 오늘은 갈라디아서야……」

성경을 들으며 잠이 드는 듯 싶더니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가요, 저는 가요!」 마지막이었다. 오후 3시 45분. 밖에는 무섭도록 화창한 5월이 산산히 부서지고 있었다.

<형>

목정공원 전도

홍 경 숙
〈중등부 1학년〉

내가 4학년 때 어느 주일에 있었던 일이다. 장형숙 언니가 목정공원으로 전도를 가자고 해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6학년 언니들을 따라서 공원으로 갔다. 공원에 가 보니 여러 사람들이 놀고 있었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있으니 형숙이 언니는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성경이야기를 해 주고 있었다. 차츰 어린이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언니 주위에 뱅 둘러섰다. 하나 둘 더 모이기 시작하자 거기서 놀고 있던 장패같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하였다.

“제까짓게 뭘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니, 천국이니 야단이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좋아한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뭣하러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그러나 형숙이 언니는 끝까지 참고 있었다. 그런 형숙이 언니를 보니 나는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한테 욕까지 먹으며 뭣하러 전도를 하는지 싶었다.

어린이를 한 열명쯤 데리고 교회로 돌아왔다.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릴 때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 나는 부끄러웠다. 내가 형숙이 언니를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한없이 불쌍했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노력하여 형숙이 언니 못지 않게 전도를 열심히 하여 우리교회에 다 들어 올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린이들을 교회로 인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중현 만평〉



6·25의 교훈

정 은 표

벌써 24년 전 일이다. 등뒤에서 쏘아대는 공산 괴뢰군의 파발총소리에 놀라 우리 식구가 갯벌을 가로질러 필사의 탈출을 하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새로운데 벌써 그토록 긴 세월이 흐른 것이다.

우리민족의 최대 비극이었던 한국전쟁(韓國戰亂)——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에 의하여 도발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기까지 불과 3년 동안에 유엔(U.N.)측은 제 1차 세계대전 전비(戰費)와 맞먹는 150억불을 지출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유엔측의 총사상자 수는 33만, 공산측은 180만명에 이르렀다. 또한 크지도 않은 이 나라에서 20여개국의 군대가 서로 엇비슷하게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금수강산이라던 우리 강토는 초토(焦土)가 되어 피로 물들었고 60만체의 가옥이 파괴되고 20만명의 전쟁 미망인, 10만명의 전쟁 고아가 생겼으며 공업시설의 45%가 파괴되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예나 다름 없이 산과 들은 푸르름으로 절여가도 채 아물지 못한 상처에 거친 옷자락이 스치듯 이같은 민족의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못한채 너와 나의 가슴을 더욱 쓰리고 아프게 한다. 더우기 요사이 매스컴을 통해 월남 난민(難民)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볼 때마다 우리의 과거 쓰라린 기억을 재현해 보이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생각해 보면, 최근 월남사태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와 흡사하게도 월남 또한 강대국의 식민지라는 압박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방되었으나 공산당에 의해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이같은 경고에 대해 끝내 깨닫지 못한 것 같다. 그 결과 해아릴 수 없이 많은 인명·재산의 피해를 입고 결국은 나라와 자유를 잃고 가련한 국제 고아가 되어 세계를 방황하고 있는 신세로, 그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정말 민족이 없는 선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양단된 우리 국토를 볼 때마다 그 아픔과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니느웨성에 선포하셨던 최후의 경고처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멸망이라는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38장벽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극적인 감격의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민족 복음화에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걸어야 하겠다.



자!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나 하나가 죽음으로

실기를 원한다면 죽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그 어느 날에 죽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계속되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복음의 종인이 되기 위하여 나 하나가 죽음으로 30명, 60명, 100명, 아니 우리 민족이, 세계가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至上)명령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 입니다. 이러한 복음화의 명령을 보다 충실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6월을 기해 『총동원 전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방침과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 우리가 기다리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한 사람도 주저하거나 구경꾼이 되지 말고 먼저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일어섭시다.
- 》 자,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 방 침

모든 성도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하게 한다. 특히 주변에 있는 특정한 사람을 전도대상자로 정하고 계속적으로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기 간

1. 준비기간 / 5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2. 실 시 / 6월 22일부터.

□ 준비활동

1. 실행위원회 조직
각 지회의 임원과 일반 성도를 총망라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위원회」를 조직한다.
다음 / 회장 · 부회장 · 감사 · 기획부 · 동원부 · 훈련부 · 통계부 · 지도부
2. 인쇄물 배포
교회 안에서 · 총동원전도운동 실시요강 · 기록교임문서(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가?) · 전도지(장년용, 청년용, 학생용)
3. 홍보활동
모든 예배와 회의 때마다 주지시키며 포스터 · 주보 「총동원」지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린다.

□ 실시일정

- 6월 8일: 「총동원전도운동 실시요강」 배포
- 6월 15일: 전도 헌신예배—전도부 주최
- 6월 16일: 구역권찰 특별기도회
- 6월 22일: 「안드레 카아드」 배포

6월 23일: 사도행전 공부와 전도훈련

6월 29일: 전도지 배부, 「안드레 카아드」 접수

7월 7일: 「안드레 특별기도회」

8월 : 「제1기 전도요원」을 모집하여 3개월 동안 훈련

□ 『안드레회』 운영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안드레가 있었던 것을 감사하고 나도 또한 안드레가 되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요 1: 40-42).

1. 안드레가 되고자 하면 「안드레 카아드」에 자기가 꼭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을 1~4 사람을 기록한다.
2. 자기가 정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매일 한번씩 기도한다.
3. 서로 잘 알고 있는 다른 안드레 두 사람과 조를 짜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구체적인 전도방법을 연구한다.
4. 구역예배 때마다 각 안드레가 작성한 전도대상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한다.
5. 결신자가 생기면 즉시 교회 전도부에 보고한다.
6. 월 1회씩 교회 전체 「안드레 기도회」를 연다.

총동원!

엄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운동!

성령의 올바른 인식

정 상 우 목사

(부목사, 청년부 지도)

연재 순서

1. 성령의 올바른 인식
2. 성령 받음
3. 성령의 충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고전 12:1).

이 말씀은 고린도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임니다만 오늘날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바로 알기를 원한다. 성령님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며 또한 특권이기도 한 것이다.

그럼, 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먼저 몇가지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I.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

구속 사업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주된 사역(엡 1:4-14)을 따라서 시대를 구분한다면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구약시대는 주로 성부시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던 시대(God for us)로 성부 하나님께서 선민을 택하시고 선민의 역사를 섭리하신 때이고 ② 신약시대는 성자시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신 시대(God with us)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때이며 ③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성령님의 시대로써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대(God in us)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구속사업을 적용시키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에 사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II.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한다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패망하게 된 원인을 지적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책망하면서 “나는 번제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 6:6)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령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즉 성령님을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성경에 쓰여진 성령(Holy Spirit)이라는 어휘나 또는 “성령을 받으라.”는 표현에 성령님을 어떤 중성체와 같은 「힘」이나 「감화력」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되신 하나님 바로 자신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빌 2:13; 고전 12:6; 엡 4:30; 행 5:3-4; 마 28:19).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고전 2:10) 또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도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고전 12:3). 성령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에야 우리는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특이한 신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III.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기독교의 구속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구속사업은 예수님의 단독적인 역사가 아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시면서 역사하신 것이다. 즉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잉태였으며(눅 1:35),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도(눅 4:14) 십자가의 죽으심도(히 9:14) 그의 부활하심도(롬 1:4,8:11) 성령님께 의지하셨던 것이다. 더욱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구속사업을 우리들에게 친히 적용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 구속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이다. 우리의 중생도, 성화도, 영광도 모두 성령님의 역사요 은혜인 것이다. 성령님이야말로 구속사역에 있어서 「알파」(α)와 「오메가」(ω) 즉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IV.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 전반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알아야 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성령을 좇아 행하라.”(갈 5:16).

성령님은 구속사역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개인적인 정진생활과 봉사생활 교회생활 등 전반적인 신앙생활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삶(요 10:10)을 누리게 되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과의 관계 여하에 달린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님을 사모하며 충만함을 받는 일인것이다. 오늘날의 모든 문제해결은 국가문제나 사회문제나 교회문제나 가정문제나 개인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바로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데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바로 알아야 되며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처한 부활절부터 시작하게 된 특별집회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홍 중 섭 · 한 경 일 · 김 종 석

—지난 5월 25일 제 2 차 투표에서
새로이 장로로 선출—

지난 5월 4일 미리 공고된 대로 5월 25일 10명의 장로를 더 세우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해외여행으로 백성룡 목사의 사회로 실시된 이날의 선거는 대단히 어려운 선거이었다.

낮 예배 때에 실시된 제 1 차 투표에서는 모두 1,116명이 투표하였으나 개표결과 당선자는 한 사람도 없었고 저녁예배 때에 실시된 제 2 차 투표에서는 모두 502명의 투표하여 홍중섭 · 한경일 · 김종석 등 3명을 새

로이 장로로 선출하였다.

이는 10명 정도로 선출하려던 처음의 뜻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며 앞으로 이 3 사람은 오는 가을 수도 노회에서 노회가 시위 · 승인하고 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임직순서를 갖게 됨으로써 특별한 흠이 없는 한 종신토록 장로로서의 직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홍 중 섭 ◇

- 1924년 12월 20일생
- 평남 대동 출신
- 1966년 내수동교회서 장로장립
- 현재 대학부 부감 (증경장로)
- 부인 김진만 집사와 슬하에 1녀
- 문화미부과의원 원장



◇ 한 경 일 ◇

- 1937년 5월 5일생
- 평북 의춘 출신
- 현재 유년부 부감 (집사)
- 부인 고경자 집사와 슬하에 3남
- 청산전자산업주식회사 사장



◇ 김 종 석 ◇

- 1937년 4월 11일생
- 경남 웅천 출신
- 현재 초등부 부감 (집사)
- 부인 장영희 여사와 슬하에 1남 1녀
- 의류 제품업

총동원 전도 운동 전개

—명동 일제전도—

지난 5월 18일 성령강림주일을 맞아 우리교회는 청년부 회원과 대학부회원을 중심으로 특별집회를 마련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명동 일대에 일제전도를 했다.

약 300여명의 교인이 참석한 이날의 전도에는 참가한 모든 사람이 「구원은 오직 예수」라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1만여매의 전도지를 배포했다. 또한 이날은 우리교회에서 일제전도의 날로 정하고 온 교인이 2명 이상의 전도를 하도록 후보에 전도지를 끼워 배부했으며 각 부 주일학교에서도 주교 예배가 마친 후 일제히 전도를 실시했다.

한편 우리교회는 6월이 한달을 「총동원 전도의 달」로 정하고 이와 같은 전도를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게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계속적인 「전도요원 훈련」도 실시하게 되리라고 한다.

농어촌 교역자 초청 훈련

우리교회 성경학원에서는 「제 1 회 농어촌교역자 초청훈련」을 오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고 한다. 올해는 충청남북도의 교역자 50여명이 초청되리라고 한다. 또한 「제 4 회 농어촌교회 평신도지도자 훈련」도 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고 한다. 모든 훈련에 초청되는 사람들의 왕복 교통비 및 숙식비 일체를 우리교회에서 부담한다.

교회 미화작업 공사에 착수

당회 영선부에서는 우리교회 모든 건물에 대한 도장공사를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모든 창문에 새로이 커튼도 할 예정이라고 하며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는 공사는 이미 지난 5월 29일 착수되었다.

전도부에 유급사무원

지난 5월부터 전도부에서는 전도활동의 강화로 급증하는 전도사업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유급 여사무원(장영자 선생)을 두었다.

22일부터 특별 부흥집회

—특강과 전도 실시 방위성금 모금도—

오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특별 부흥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6·25를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부흥회는 시대적인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데 큰 뜻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종전과는 좀 달리 낮 시간에는 특강을 듣고 총동원 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며 강사는 우리교회 교역자 가운데서 모실 예정이라고 하며 이번 부흥회가 열리는 동안에 방위성금을 모금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교회 문서운동 담당자 교육

「총현」 편집위원회가 실시한 제 2회 편집자 교육이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실시되었다.

일일평균 15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교회 문서운동의 참여자로서의 소명의식 고취와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재기는 목사(기독교보 주필)와 박종주 선생(신망애사 편집주간)이 외래강사로 초빙되었고, 평가회에서 앞으로는 다른 교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사회, 24시간 기도운동 전개

지난 4월 13일 발족한 「권사회」에서는 4명을 1개조로 하여 모두 30여개조가 팀데이스크로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를 함으로 매일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권사회가 속히 수양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매월 둘째주일을 정기 월례회 주일로 정하고 모이기로 하였다고 한다.

당회장 선교지 돌아보려 출국

총회 선교부장이며 우리교회 당회장인 김창원 목사는 지난 5월 20일 대만·인도네시아·태국 등의 선교지를 돌아보고 실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국하였다.

특히 서만수 선교사 내외가 활동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임마누엘 선교단의 초청으로 각지를 순회하며 부흥집회를 열게 된다고 하며 오는 6월 15일 경 귀국할 예정이다.

주일학교 전체 교사 수양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주일학교 11부 350여명의 전체교사 수양회가 올해도 오는 6월 6일 경기도 여주 영농에서 열리게 된다고 한다.

다른 부의 교사들과는 접촉할 기회가 좀처럼 없다는 평소의 아쉬움을 덜고 교사들간의 획기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하고자 해마다 실시되는 교사 수양회를 위하여 주최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6일 아침 8시 30분까지 일단 교회로 모두 모여 준비된 버스편으로 출발한다고 한다.

스승의 주일 부모 님주일과 통합

이제까지 부모님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각각 구분하여 지켰던 것을 내년부터는 부모님주일 행사와 함께 통합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는 부모님주일이 라는 말 대신 「어버이주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경로회 성료

청년면려회가 주관하여 실시한 제 10회 경로회가 지난 5월 24일 유년부실에서 70세 이상되신 할아버지 할머니 130여분을 모시고 은혜중에 마쳐졌다.

청년회원 60여명이 온갖 시중을 들었고 주일학교 각부, 특히 꼬마들의 티 없이 맑고 밝은 재롱은 정성스러이 마련한 점심 식사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흥을 돋우어 주었다.

토막 소식

◇구역권찬회는 최정순 집사를 가과구역 권찬로 임명을 청원하여 허락 받았다.

◇전도부는 강원도 철원 대마교회(박윤성 전도사 시무)에 3만원을 보조하였다.

◇남전도회는 원 지교회 외에 또 다시 개척교회를 세우기로 하였다.

◇여성성가대는 18만원의 예산을 들어 가운 60벌을 새로 만들기로 하였다.

◇교회는 지난 5월 17일 임당에 배를 드린 성원교회(이종영 목사 시무)에 오르간 1대를 증정하였다.

◇권사회는 박종주 권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지난 5월 30일 박권사의 회갑날을 맞아 회갑패를 증정하였다.

◇노년부는 오는 6월 29일 삼반기 출석·인도·암송 등의 시상과 친목회를 연다고 한다.

◇장년부는 오는 6월 29일 성경 암송대회를 열 예정이다.

◇대학부는 오는 6월 21일 제 4회 중·고·대 신앙응변대회를 열 예정이다.

◇대학부는 지난 5월 11일 대학부 학원전도제 500부를 발행하였다.

◇대학부는 지난 5월 11일 저녁 예배를 헌신예배로 드리고 특별헌금 1만원을 충북 괴산의 삼승교회에 전달하였다.

◇대학부는 제 3회 향상음악회를 오는 6월 14일 대예배실에서 연다고 한다.

◇고등부는 오는 6월 29일 정기성 목사를 강사로 「통일교 비판」의 특강을 열 예정이라고 한다.

◇고등부는 지난 5월 11일에 후반기 정기총회를 열었는데 이영철 군이 회장으로 뽑혔다.

◇고등부는 오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신인원 수련회를 연다.

◇중등부는 지난 5월 18일 스승의 주일을 맞아 오태희·김순애 교사를 모범교사로 뽑았다.

◇중등부 작은 음악회와 밤에 지난 5월 17일 35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영아부·유치부·초등부는 오는 6월 29일 2학기 시험을 볼 예정이다.

기자석

*셋별처럼 빛나는 초롱
초롱하고 맑은 눈, 그 눈
을 깜빡이며 무엇인가 열
심히 찾고 있다. 그리고는
고사리 같은 손을 펴 집어

서는 입에 넣으려는 순간 엄마의 손이 짹째 가르
쳐 버린다. 앙— 울음을 터뜨린다.

*아기는 이 방에 들어와서 무엇을 좀 해보려면 거
의 모두가 방해를 당한다. 도대체 사사건건 방해를
당해야 할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때는 물어주
는 수 밖에 없다. 어른들 하고는 도대체 말이 안 통
하니까……

*이것은 모자실의 한 단면이다. 바닥은 흙투성이
고 아기의 키보다 더 큰 의자가 있다. 아기가 말을
할 수 있어 모자실은 어른들만 편리한대로 만들어 놓
았느냐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아
기들도 불편이 없도록 의자를 치우고 마음대로 놀수
있도록 해준다면 아기가 물어 주어야 하는 수고는 덜
어줄 수 있을 것이다.

<독>

*기다렸던 기자 연수회—애석하게도 일부만 참석
했지만, 기자들에게 의욕을 심어주고 사명감을 불려
일으켰던 점에서 자주 있었으면 한다.

*마음 먹었던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특히 시간
상 부족이 할 수 없을 때는 직장을 가진 평신도의 역
할은 무엇일까 생각해 된다. 우리 몸의 지체가 작기

있고 그 하는 일이 다르듯이, 각자에게 투신 뜻과 반
으실 영광이 따로 있으려니……주께 합당하게 쓰여
지기를 바랄 뿐이다.

*초여름에 접어들어 진한 녹음이 파닥거리고, 예
배시에 까닥까닥하는 졸음도 달콤하게 밀려오는 것
같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스개도 있지만,
때에 맞춰 잠자게 하옵소서.

<절>

*증거자가 되기 위한 삶의 행로는 고달프기만 하
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련들이 닥쳐오는가 하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에 당면하기도 한다. 때로
는 입을 열어 담대히 말해야 되지만, 때로는 함구무
언으로 순종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으려는 마음, 절대 영원불변
한 진리를 추구하는 작은 마음밭에는 어떠한 자신의
오류에 대한 관용도 존재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바른 양심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맑은 양
심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총현 식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초여름 햇
살처럼 내리비취기를 빈다.

<열>

*대지를 적시는 비를 보며 건조하기 쉬운 지체들
에게 총만한 성령의 비를 끊임없이 주시기를 간구드
린다.

*날로 어두움의 권세가 강행하여, 여러 형태에 적
그리스도가 음양으로 다가옴을 볼 때 우리의 좌표를
확실히 상기하여 기도의 고개를 당기자.

<재>

편집하고 나서

◇ 월간『총현』조직표 ◇

□ 발행인/김창인 편집인/위영환 주간/신성종

□ 편집위원회

위원장/위영환

위 원/윤종순·최석주·정관일·신성종
한경일·윤명식·구명신

□ 간 사/조선근·정은표·이행수

□ 기 자/신재성·신영운·황복순·박영자
여향구·한해숙·이정숙·이혜봉
안영자

—1975년 6월 1일 현재—

◇…이번 1 호에는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열렸던 「제 2회 편집자교육」의 강의 가운
데 일부를 특집으로 엮어 보았다. 박종구·조선근 두
분께 좋은 강의와 함께 「총현」지에 기고까지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단편적이
고 개략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시한번 교
회에서의 문서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가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 편집자교육에 참가하였
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교회의 문서운동 담당자
는 반드시 성직자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
하여야 한다는 데 크게 감동하였다는 점이다.

앞으로 여러 모로 총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총현」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
혀 한국의 모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총현」지가 되
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해 본다.

◇…매호마다 전보나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총현」지
를 만들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보지만 모든 원
고를 인쇄소로 넘기고 나면 언제나 아쉬움의 여운이
남는 것은 단지 실무진의 역부족에서인가? 하기가
컬러시대에 살면서 아직도 흑백시대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 우선 실망을 주지만 대부
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마저 키우기보다
는 애써 외면하는 것은 단지 인식 부족으로만 볼 수
있을까?

<표>

□ 원 고 도 집 □

총현의 모든 가족들이 「총현」지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다 음

종류: 신앙간증, 수필, 시, 성도의 교제나 교회
발전을 위한 제언 등.

매수: 200자 원고지 8매 정도.

기간: 수시.

제출할 곳: 「총현」투고함이나 교회 사무실.

※ 주의: 한글로 쓰시되 외국어를 필요로 할 때는 국
호 안에 써 넣으십시오.